▶▶ 매일 INDEX

3면
전북 지방의원 45명,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선언

전주매일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음 8월 11일) 제28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교육청·지역명 넣어 사용

지난해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패소 결과 반영

전북도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들 가운데 기관 명칭에 시군지역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명칭에는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 부르고, 교육문화회관들의 명칭에는 기관 소재지역의 시군 이름을 포함시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관명칭에 '교육청' 글자가 추가되는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곳이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추가된다.

또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의 명칭도 소재한 지역들의 명칭을 넣어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전북교육청이 산하 기관들의 기관명칭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청'이라는 문구를 일괄 추가해 의결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교육감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에 신청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9월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전북교육청이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초 전북교육청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쳐 내려졌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직속기관 명칭을 놓고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의견대립이 있었을 때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의 지적에 대해서 김형기 행정과장은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주민들과 도의회를 싸움붙이는 그런 방식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교육감의 충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부터는 신설학교나 기관 명칭을 짓는 데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공개모집 등의 참여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역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 안치식 미사'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완주군 초남이성지 유해 안치소 마당에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현양 미사 및 유해 안치식'에 참석해 미사를 드리고 있다.

올 추석 '전북 1000리길'로

도, 코로나19 극복 생태체험 운영 등 힐링의 장 마련

추석연휴 귀성객 힐링 체험 위한 주요노선 사전 점검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

전북도의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전북 1000리길'이 귀성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000리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고향의 아늑함을 몸소 체험할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16일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생태·힐링 체험 공간인 1000리길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선정한 전북 1000리길은 14개 시·군, 44개 노선으로 총 405km에 이르며, 아름다운 해안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길(6개 노선), 걷는 내내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강변길(6개 노선), 산과 들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산들길(27개 노선) 가을철 물안개가 아름다운 호수길(5개 노선)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허전 환경녹지국장을 중심으로 각 시·군과 함께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을 귀성객들을 위해 1000리길 주요 기반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다했다.

도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위해 쾌적한 탐방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1000리길 방문객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잊지 않고 당부했다.

특히, 탐방객 2m 간격 유지, 4인 이내 소규모 탐방 등 지난해 생태관광지와 지질공원에서 탐방 거리두기로 확인된 감염병 확산 방지 사례를 다시 한번 실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14개 시·군도 1000리길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중점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이후의 탐방객 수요 증가 등에 신속한 대체를 위해 1000리길 신규노선 발굴 등 탐방자원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선 주변의 연계 관광자원의 발굴과 생태관광지, 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 도내 우수 관광자원과의 연계 탐방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조성된 둘레길, 마실길 등의 1000리길 지정 부합성 평가 등 신규노선 발굴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기존 1000리길에, '새로운 천년 전북'을 맞이하는 신규 1000리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1000리길 안내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언제라도 치유할 수 있는 1000리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1000리길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탐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1000리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엔젤투자 저변 확대·활성화

도, '엔젤투자 설명회' 진행

전북도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 호남권 엔젤투자 허브(이하 엔젤투자 허브)와 도내 엔젤투자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호남권 엔젤투자 설명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호남권 시·도 및 창경센터가 참여하는 엔젤투자 허브가 지난 5월 26일 개소한 이래 많은 협업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도 그 중 하나이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잠재적인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이해와 현황, 엔젤투자 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도내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엔젤투자 허브와 창경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도내 엔젤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북엔젤투자클럽과의 협업으로 씨드단계 안정적인 투자금을 지원해 스타트업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엔젤투자자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동거동락하며, 성장을 함께 공유하는 조력자로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엔젤투자는 기술이 뛰어나고, 사업성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자문까지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를 통칭한다.

도는 올해 호남권 엔젤투자 펀드(50억 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호남권 엔젤투자 워크숍'도 오는 11월 23일부터 이틀간 전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 국장급 인사 단행

전북도가 16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천선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부이사관에 임명돼 총무과 근무를 발령받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근무를 17일부터 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되시길 빕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27일 신문 발행합니다.